

## 2019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심의결과 최종심사평

○ 심사일시 : 2019년 7월 5일 15시 ~ 19시

○ 심사장소 : 마포중앙도서관 5층 다목적실

2019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에는 총 51개 서점이 지원하였다. 1차 사업주관 기관 예비행정심의회, 2차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및 토론 심사에서 23편을 선정한 후 3차 인터뷰 심의를 거쳐 19개 서점을 최종 선정하였다.

서점의 경우 시설 및 운영 역량과 특성화 수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서점 내 문학서적의 비율과 상주문학작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도 고려하였다. 상주문학작가의 경우 문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 파견문학작가와의 협업이 잘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와 함께 거주지 현황을 살폈다. 무엇보다도 서점과 상주문학작가가 기획한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요시했으며 사업이 서점 및 지역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는 것을 밝혀둔다.

본 사업의 목적이 서점과 작가를 매칭하여 지역 주민과 청소년이 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만큼 각 서점 문학 프로그램의 독창성과 기획력을 염두에 두었다. 그런 이유로 단순 글쓰기 프로그램이나 파견 작가의 일방적 강연보다는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여 문화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 선정하였다. 서울과 지역의 서점들을 균형 있게 선정하려 노력하였으며 지난해 본 사업으로 좋은 성과를 보인 서점과 신규 신청 서점이 동일한 점수를 받았을 경우, 보다 많은 서점들에 기회를 주기 위해 신규 신청 서점을 우선 선정하였다. 대부분 서점과 작가들의 프로그램 기획력은 우수했으나 본 사업에 대한 서점의 이해도가 낮은 점, 작가들의 수동적인 태도가 다소 아쉬운 곳이 있었음을 밝혀둔다.

최종 선정된 19개 서점과 상주문학작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문학 활성화에 많은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.

심사위원 일동